미국-이란 외교관계와 이란 국민의 인식 변화
- 모사테그 통치기를 중심으로 -
U. S.-Iran Relations and Iranian Perceptions Change
- The Mussadiq Era, 1951~1953 -
장병옥
한국외대

△ 목 차 △

I. 서론
II. 미국-이란 외교관계의 역사적 배경
III. 모사테그 통치기의 석유 국유화와 미국의 개입
IV. 모사테그 정권 붕괴 후 대한 미국-이란 국민의 인식
V. 결론

주제어: 석유, 국유화, 미국, 영국, 이란, 모사테그, 민주주의, 사, CIA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론

현재 이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싼 야기된 미-이란간의 대립관계를 이해하기에 앞서 앞 양정 당시의 1950년대 이란 석유 국유화 운동을 주도했던 모사데그(Mussadeq) 민주주의 정책을 미 CIA가 개입하여 봉쇄시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배경과 내막을 연구해어야 할 필요가 있다.

1951년 4월부터 1953년 8월까지 이란 총리를 지낸 모사데그는 이란의 거의 모든 세속적 민주주의 세력과 일부 보수적 종교 세력으로부터도 존경받았다. 그는 당시 영국이 강압하고 있던 국내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오일 달리리를 이용하여 앞으로 수십 년 간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란 내에서 영국의 오랜 패권주의에 종착부를 적었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단순히 이란인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그는 또 사와 전통적인 지배 계층의 힘을 감소시키고 도시 중심층 및 하류층을 결집시켜 이란의 정치체제를 민주화하고자 하였다. 비록 민주화를 위한 그의 시도는 실패하였으나, 그의 이러한 노력들은 그를 민주주의 건설을 꿈꾼 이란인들의 영웅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모사데그 집권 초기에 미국은 이란 내에서 대단히 호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란에 거주하던 소수의 미국인 교사, 선교사, 고교학자, 정부관리, 그리고 미국 정부와 대다수 미국인들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자주독립에 대한 그들의 현실적인 열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미국은 초기에 모사데그 정권을 지지하며 석유산업 국유화에 관련한 이란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란-영국 정부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또한 미국은 이란에 경제 원조를 하며 모사데그의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열망을 눈에 띄게 했다.

그러나 모사데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서서히 감소했고, 아인저헤이喟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은 쿠데타를 배후 속도하여 모사데그를 몰아내고 그의 민주화 운동을 좌절시켰다. 미국은 그 뒤 사를 진폭적으로 지원하여 그가 쿠데타 이후 수년 간에 걸쳐 권위주의 정권을 장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모사데그 시대에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의 점령적인 이미지는 선의의 제3자에서 사 독립정권의 사악한 지지자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서는 모사데그 집권 시절을 전후한 미국-이란 외교관계가 이란 국민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란 전략적 이유로 모사데그를 지지하던 미국 관리들이 그에 대해 적대 정책을 취하고 결국 그를 실각시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란인들이 미국의 이미지가 과거 ‘수호자’ 형상에서 어떻게 ‘악마화’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미국-이란 외교관계의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은 전략적·경제적으로 이란에 대해 관심이 적었고 양국 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이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1850년 이란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1944년 이전까지 대사급 외교관을 보낸 적이 없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소수의 미국인 교복사와 교사, 그리고 체육사들에 의한 선교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이란 내에서 미국에 대한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말까지 양국 관계는 외교 비조직적이어서 코로비 국왕은 미국 인물에서 주미 이란 대사에 대해 모욕적인 보도를 하자 수년 동안이나 이란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시켰음을 정도였다.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불타오르자 영국과 소련은 소련군의 보급로를 만들기 위해 1941년 9월 이란을 침공하였다. 침략군은 무기력한 이란 군대를 순식간에 압도했고, 독일의 지지자로 여겨진 레자 샤를 권좌에서 돌아오고 당시 21살이던 그의 아들에게 영양을 불러주게 하였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함에 따라 미 정부도 이란에 군대를 파병하고 보급로 확보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이 때부터 미국-이란 관계는 급격히되었다. 1944년 초 약 3만여 명의 미군 병사들이 이란에 배치되어 독일군 등 적군으로부터의 보급로 보호, 이란의 교통체계 및 석유생산 설비의 중점 및 개선, 항공기·트럭·원유저장장치의 생산공장 건설 등에 참여했다. 미국은 이란 군대와 협동을 훈련하고 재편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군 사절단을 파견하고 전쟁 기간 동안 무기 대여 행사를рыв 850만 달러를 이란에 지원했다.

1944년에 이르러 독일의 위협이 약해지자 소련은 1941년부터 점령해온 이란 북서부의 아베르바이잔과 코르두스탄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원유 개발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쟁 동맹국으로서의 일반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미국은 초기에는 소련의 이러한 활동에 제한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이란에 대한 소련의 위협은 더욱 능률적이었으며 이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945년 12월과 1946년 1월 소련의 지원 하에 반정부 세력들은 중심으로 아베르바이잔공화국과 코르두스탄공화국이 이란 북서부 지역에 세워졌다. 무장대가 상대였던 이란 정부는 미국과 영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소련군의 절수를 위한 타원성을 유엔에 제출했다. 미국 관리는 소련 정부의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유엔에서 이란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란의 카발 총리가 1946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 이란 영토에서의 소련군 절수에 대한 내용에 담긴 협정을 타
결석하였다. 이란군은 1946년 12월 아제르바이잔과 쿠르디스탄 지역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고 소수민족의 차별을 폐쇄함과 동시에 냉전시대의 첫 채식을 마무리지었다.

미국과의 비밀협정은 이란과 관련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적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 관리는 소련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헤르시아만의 석유 보호에 사람들이 결질 가능성을 크게 때문에 이란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결론을 수반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캐달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 말 미국의 데 이란 정책에는 중요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거절방어’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은 군사력을 서유럽과 일본에 집중시키고, 이란이 위치하고 있는 소련의 남부 국경선 주변 등 여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었다. 결과적으로, 와이시기의 여러 측면들이 미국의 군사·경제적 원조를 기대 요청했음에도 이란은 투로 만 독트린 하에서 그리스 또는 터키와는 달리 대규모 원조를 지원 받지 못했다.

미국은 그 대신 이 기간에 다른 방식으로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씩 넘겨갔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시작되었던 군사훈련 지원업무는 1947~48년 계약장을 거쳐 연장되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영국 간 외교·상업·문화적 교류가 증대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 중앙정보국의 전신인 미 전략사무국이 1947년 초 태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지부를 설립하여 대사관 관리와 무관들이 받아온 비밀공작 업무를 넘겨받았던 것이다.

1940년대 말 전개한 정치 참여의 기회가 거의 없는 데다, 이란 석유산업을 독점하 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영국 소유의 영국·이란 석유회사(AIOC: Anglo-Iranian Oil Company)에 대한 반감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던 이란 인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점점 심해졌다. 이 같은 동요는 주로 1941년 참봉되어 이란 최대의 정당으로 성장하다 아제르바이잔 위기 이후 불안한 전소련계 공산당인 투데당(Tudeh party)에 의해 주도되었다. 1949년 10월에는 유력한 정치의 인사들이 모여 정치개혁과 AIOC의 이란 내 자산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민족전선을 창설했다. 민족전선은 급속도로 대중적 지지를 얻어 1949년 말 이란 의회인 마쥬레스(Majles)에 8명이로 당선되었다. 민족전선은 이란 이기 바로 모사테그였는데, 그는 부유한 지주 집단 출신의 마주리익이었으며 열정적인 민족주의자이자 민주 주의자, 그리고 이란의 몇 안 되는 정식적 정치인으로 유명했다.

1950년대 초 미국은 이란의 정치상황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이들은 이란 정체가 위협하고 폭발적이며 이란이 ‘제2의 중국’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와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미국은 대외전략에 대해 대대
적인 수정을 가졌으며 이는 1960년 4월 작성된 NSC-68이라는 국가안보회의 문서에 명시되었다.\(^1\)

점점 증가하는 이란 내부의 사회 불안과 이 새로운 대외 전략으로 인해 미국 관리들은 대 이란 정책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결론은 결국 무대양이 집권하여 이란의 순국자에 넘기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들에, 연간 2천5백만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와 소규모의 경제 원조를 실행할 것을 결의했다. 그들은 미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2천5백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고(그러나 그 후 실제로 제공되지는 않았다), 이란이 세계은행 이 1천만 달러의 차관을 요청한 데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또,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관리 및 CIA 요원들의 수를 대폭 늘리고 당시 명망 높은 외교관이었던 헨리 그레이디리를 세 대사로 임명했다. 1951년 초 미국은 이란 정책에 길을 수해한 사례를 갖추었던 것이다.

미국은 소련 평창주의에 위협에 적응한 이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 관리들은 보다 외교 관계에 능쳤던 투즈베프의 뒤를 이어 트루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란으로부터 소련군을 철수하도록 모스크바에 압력을 가하여 결심을 맺었다. 이와 같이 영국이나 소련과 달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란의 국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와 독립을 대표하는 국가로서의 '수호자'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

III. 모사데그 통치기의 석유 국유화와 미국의 개입

1. 모사데그 정권의 석유 국유화 운동

석유 국유화 운동은 처음에 영국의 석유산업 지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나 이는 곧 자주 독립시국가 이란을 향한 대중들의 목표로 발전되었다. 이 운동은 이른 조작은 민족전선(National Front)이었는데, 민족전선은 완전 상호 연관된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49년 11월 모사데그와 18명의 유력 인사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독재정치를 종식하고 이란 국내 문제에 대한 외세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포괄적인 목표에 기인하여 민족

전선은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단체들을 하나의 우산 속에 앉으르는 조합이 되었다. 여기에는 자유정계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공존했다.

1950년대 내내 정치개혁과 석유산업 국유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 가운데 이란 내부의 동요는 더욱 성화되었다. 1950년 6월 26일 사는 노동자와 라즈마라
(Ali Razmara) 사령관을 총리로 지명했음을 발표하자 이란 민중들은 그가 영국에 맞서 석유 국유화 문제를 잘 처리할까하는 의구심으로 혼란에 빠져있었다. 당시 이란에서 정계가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에서 38도 선을 넘어 남쪽으로 침략해 내려오고 있다는 또 다른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2)

1951년 3월 3일 라즈마라 총리는 마즐레스에서 석유산업 국유화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며 정치 및 사회개혁적 계획정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석유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그의 전임자들도 AIOC와 많은 우기협정을 실행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모사테그와 민족정신은 석유산업의 완전 국유화를 주장했고, 과격한 이슬람 단체인 레다야네 이슬람(Fedayan-e Islam)의 한 단원은 4일 뒤에 라즈마라를 암살했다. 사는 여론에 빠져 1951년 4월 29일 모사테그를 총리에 임명하고 5월 2일 석유산업 국유화 법안을 승인하였다. 모사테그는 이란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이 가득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3)

모사테그가 총리로 부임하자 그의 첫 번째 일을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고 AIOC의 영향력을 제거함으로써 국영의 건설로부터 벗어나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란에서 큰 역사적 사건으로서 흥호하는 이란 군중들은 "석유가 국유화되었다: 이란의 존중받는 총리 모사테그 박사 만세!"라고 외쳤다. 4) 그의 지위, 권력, 그리고 인기는 AIOC를 국유화함에 기초하고 있었다. AIOC의 국유화는 영국의 불안한 경제상황과 이란에서 그 동안 두려운 특권에 크나큰 치명타가 되면서


영국과 이란은 더욱 침해하게 대립하였다. 영국은 그 후 수개월 간 이란 석유산업에 대한 영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모사테그를 총리직에서 실각시키고자 했다.

반면 트루먼 행정부는 모사테그가 실각하자 그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그가 대중적 지지도가 훨씬 높아서 무대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위험한 관리는 미국의 대 이란 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석유 위기가 잦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와 서방 세계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이란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도 서방 세계 전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트루먼 대통령의 전여 일기 동안 미국은 모사테그를 지지하고 영국의 이란 정권 교체 전략에 반대하였으며, 석유 분쟁의 양쪽 당사자들을 만족시키고 국제 석유시장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1951년 7월 데니스||(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은 에비델 하리먼(W. Averell Harriman) 특사에게 사절단을 이끌고 테헤란과 런던으로 가서 석유 분쟁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리먼은 영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근절된 노력 끝에 영국을 설득하여 리차드 스톤스를 내각으로 하는 협상단을 이란에 파견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스톤스가 이끄는 사절단은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영국과 이란간의 협상은 그 해 8월 결렬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에 따라 영국은 1951년 9월 아미란 주재 영국의 고위관리의 대 이란 무력사용 전의에 따라 이란 서남부 지역을 점령하여 유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에 대해 알계 된 트루먼 대통령은 에델리 영국 총리에게 미국은 점령전쟁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고 이란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제도자들은 이란의 어떤 군사적 공격도 점령화될 수 없음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개입 가능성을 주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결국 에델리 총리는 각료들에게 “미국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 이란에서 무력용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며 점략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 처칠 총리는 한국전쟁에서 영국이 미국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란에서 “영국-미국은 하나로 통일해서 행동한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7) 모사테그 시대의 영국 외교관으로서 선출인이었던 샤를(Sam Falle)는 자신의 비방속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무대타가 물론 비도덕적이다. 위나하면 그것은 이란의 내정문제에 대한 간섭

6) Bill, op. cit., p.270.
7) Kinzer, op. cit., p.145.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2년은 매우 위험한 시대였다. 냉전은 한반도에서 열전으로 바뀌고 있었다. 소련은 1948년에 베트민을 모두 장악하고자 했다. 서방세계는 이란을 소련에 넘겨주기 위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5)

당시 군대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고 투대당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모사테그는 새로운 그들의 축군들로 세우고 비상계열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마일레스에 요청하자, 카시나, 맥카, 바카이 등 민족전선 지도자들의 성기를 진드였다고. 게다가 자헤디(Fazelullah Zahedi) 장군이 이끄는 일부 군 장교들은 영국 정보네트워크의 협력 인물인 라쉬디안(Rashidian) 형제와 함께 모사테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9) 자헤디는 1962년 7월 폭동 때까지는 민족전선을 지지했으나 투대당의 부활과 군대의 실각한 사기에 저항을 점점 반대파로 돌아서 게 되었다. 그는 영국 대사 대리를 만나 영국 정부가 자신의 루데타를 지지하고 미국 측의 돕기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대사 대리는 런던에 이들을 보고하고, 자헤디를 도와주는 지지를 받은 후, 헨더슨 미국 대사에게 자헤디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자헤디는 그의 부하 장교 한 사람도 9월 초 헨더슨을 만나 투대당의 세력을 전면을 새로운 정부가 곧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헨더슨은 이와 같은 내용을 위임관에 보고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다.10)

이 시기 미국의 대 이란 정책은 깨나 모호했다. 이란의 불안한 정세와 투대당의 부활에 불안을 느낀 헨더슨 대사는 대규모 원조를 통해 모사테그 정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건의했다. 실질적인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는 영국과의 공개·비공개 대화를 통해 석유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시금 모색하고 모사테그 정권을 계속 지지하였다. 그러나 데라한 주재 CIA 요원들은 최소한 비밀공작 활동의 일부를 모사테그의 지지기반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영국도 이와 유사한 반 모사테그 비밀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

8) Ibid., p. 205.
9) 모사테그는 자헤디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이 실패되지 못하도록 그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자헤디가 이란 상임회원으로서 민족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할 수 없었지만, 1962년 10월 13일 자헤디의 축군인 부대장과 라쉬디안 형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받았다. 모사테그는 영국 관리들이 자헤디를 지원했다.10월 16일 영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정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관리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이란의 상황이 걱정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식하였다.
10) Gasiorowski, op. cit., p. 57.
미국-이란 외교관계와 이란 국민의 인식 변화: 장병옥 9

있다. 더 이상 테헤란 대사관을 통해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영국은 모사테그 축출을 위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란에서의 영국 정치활동 을 이끌어온 우드하우스(C.M. Woodhouse)는 미국 관리들에게 모사테그 축출 계 획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11월 워싱턴으로 갔다. 우드하우스는 CIA와 국무 관리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CIA 고위관리들은 쿠테타에 찬성했으나 일부 이 란 친문구들과 CIA 테헤란 지부장은 이 계획에 반대했다. 국무부 관리들은 우드 하우스에게, 트루먼은 쿠테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야젠하워 대통령 당선 자와 그의 외교정책 보좌관들은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 쿠테타를 마지 못해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1963년 3월 미국의 총파 중재안이 거부된 이후의 일이었다.11)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의 교체가 일어났던 1963년 1월 존 F. 달레스(John F. Dulles)가 긴 애치슨 대신 국무부 장관이 되었고, 그보다 조금 앞서 이란에서는 헨리 그리디미어 미국 대사 자리에 보이 헨더슨이 들어갔다. 애치슨과 트루먼 민 주당 행정부는 혼란스러운 이란 국내 정세에 대한 소지해 있었던 반면, 달레스와 아야젠하워 공화당 행정부는 이란 문제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12) 애치슨은 국무장관에 의해 주도된 트루먼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의 주요한 이유는 끝내는 당시 한국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위협이 있고 문제는 풍부한 석유자원에 대한 제한 우려였다.

2. 미 CIA의 쿠테타 개입과 모사테그 정권의 붕괴

아야젠하워가 1963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자 새 행정부는 소련을 더욱 효과적 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재편하기 위하여 보다 대담한 계획들이 구상하였다. 196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첫 번째 NSC-162에 최종 정 리된 그들의 새로운 외교전략은 소련 봉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시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주된 과제였다. 이 방안들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중소 주권의 친 서방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이는 트루먼 행정부가 시작한 프로젝트였으나 그 동안 한국전쟁과 유럽 지역의 개건으로 인해 뒤틀린 바 있다.

새로운 외교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아야젠하워 행정부는 그간 유럽에 집중되었 던 군사·경제 원조를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제공하고 소련과 중국을 압박하는 방

11) Falle, op. cit., p. 85.
위 동명국 연합을 구성하였으며, CIA 첨보활동을 대폭 증가시켰다. 소련과 인접한 위치, 그리고 모사데그가 석유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란은 미국의 새 외교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곧바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존 델레스 및 브루먼 행정부 시절 CIA 첨보부 부부장을 역임하고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CIA 국장이 된 그의 형제 앤델 델레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란 국내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사데그를 공산주의자로 여기지 않았으나, 그가 집권하는 한 이란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투대당이 점을 채워서 권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소련 동쪽 전략에서 차지하는 이란의 중대한 역할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델레스 형제는 모사데그를 축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정은 당시 바이로트 근동·남아시아 지역 담당 국무부 차관보나 벤더슨 대사, CIA 페어번 지부장 및 여러 흑부 계급의 국무부와 CIA 관리들과 그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었다. 앤델 델레스는 1952년 11월 우드하우스를 만나 모사데그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쿠데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델레스 형제는 아이젠하워가 취임할 무렵 이미 쿠데타 계획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 대통령 취임 2주 뒤인 1953년 2월 3일, 미국과 영국의 고위관리들은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 회담에서 그들은 모사데그를 몰아내고 자헤디를 새 총리로 추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 작전은 CIA의 중동 지역 첨보부 부장인 키미 투즈베크가 지휘하기로 했다. CIA와 계약을 맺고 일하던 한 미국인 이란 전문가는 영국 정보 요원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작전계획 수립 일에 부응받았다. 투즈베크는 6월 25일 국무부 회의에서 델레스 형제들에 비롯한 미국 고위관리들로부터 쿠데타 계획의 실 행을 허락 받았다.

자헤디는 1952년 10월 자신의 계획이 탄로난 뒤에도 모사데그를 몰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이 기간에 영국으로부터 무기와 혼인금을 지원받은 박호티아르족의 지도자들과 여전히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마흐레스 내 그의 동료들은 모사데그를 축출하기 위해 의회 내에서도 각종 공작활동을 벌였다. 1953년 2월 모사데그 역시 사 чел을 이란에서 추방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했다. 13)

같은 날 자헤디를 따르는 퇴임 장교들과 박호티아르 부족으로 이루어진 무장세

력이 가설의 지휘 아래 이란 군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쿠테다를 유발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이에 모사테그는 연쇄폭탄을 상실한 자해디에 대해 구속 영장 방부하였다. 그러나 자해디의 측근들은 테헤란에서 연쇄적인 폭력 사태를 일으켰고, 이 때 모사테그 정부는 거의 진압할 힘이었다. 4월 말 자해디의 동료들은 모사테그의 충렬한 제지자였던 경찰점을 잃어, 살해하였다. 1953년 초, 거슬에서 봉에 어르기까지 쿠테다 음모설이 끝이지 않고 나돌았다.44

6월 25일 열린 미 국무부 회의 이후 투즈벤트가 이끄는 CIA 전담팀은 자해디와의 공조를 느슨하게 가지면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고위 군사장로들과의 지원을 모색하며 몇몇 군 조직을 쿠테다에 동참시키기 위한 몰입 작업을 했다. 그들은 7월 말과 8월 초, 사게르 두 명의 밀사를 보내 협조를 구했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자 투즈벤트는 라슈디안 협의의 도움으로 사가 직접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특별 라디오 채널을 통해 미국과 영국이 직접 이 작업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자, 사는 마음내 이 음모를 지원하는데 동의했다.

사의 지원을 들여 암은 투즈벤트는 이제 쿠테다를 잃으기가 위한 단단한 준비를 갖췄다. 사는 모사테그를 해임하고 자해디를 총리로 임명하는 절정에 서명했다. 사의 왕실 거위당이 8월 15일 밤 첫 번째 국왕의 치령을 모사테그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그 자리에서 제포되었다. 모사테그를 따르는 군대 및 경찰 조직들은 시나 곤각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자해디를 제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작업에 들어갔으며, 자해디의 측근 여럿을 구속했다. 모사테그의 해임과 동시에 테헤란으로 전격하려던 무장 병력들은 시내 전역에 체포되었다. 쿠테다 음모의 진상이 밝혀지자 사는 모라음에 범여 바그다드로 거처 로마로 피신했다. 자해디는 CIA에서 제공한 은신처에서 먹이 잘 먹었었다. 투즈벤트는 만일을 대비하여 자신과 자해디를 비롯한 조직원들의 탈출 계획을 세웠다. 다소 주중거리는 와중에도 투즈벤트와 그의 동료들은 즉흥적으로 새로운 작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의 결정을 공문화하기 위하여, 모사테그를 해임하고 자해디를 총리로 임명한다는 국왕의 치령 사본을 테헤란 전역으로 유포시켰다. 그들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왕의 명령을 모사테그가 지휘한 것 자체를 쿠테다로 규정했다.

8월 17일 투즈벤트의 전담팀은 대규모 시위대를 사주하여 테헤란 중심부를 행진하면서 '투데당의 구호'를 외치고 사를 비난하는 피켓을 휘둘며, 사와 전 국왕의 동상과 라아 사의 묘를 파괴하도록 했다. 이 시위대는 쿠테다 세력의 압력이 역할을 풀록해졌다. 그들의 시위로 인해 테헤란 시민들 사이에서는 투데당이 점령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피쳤다.

8월 18일 저녁, 이란 정찰은 자해디가 숨어 지내던 CIA의 은신처에 접근 가깝게 다가왔다. 투즈벤트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또 다른 방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카사니가 모사테그 정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과, 그가 이란의 중산층과 민중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는 카사니의 도움을 받아 모사테그 반대 시위대를 다시 결성하기로 했다.

8월 19일 오전 갑자기 대규모의 군중들이 테헤란 시내 상경가 근처에 나타났다. 그들은 광동서와 모사테그를 지지하는 경찰 및 신문사 건물들을 습격했다. 일부 군 병력이 테헤란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 모사테그를 비난하고 자해디를 추천세우는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군부대와 대규모 시위대는 속군본부를 점령하고 모사테그의 거처로 진격했으며, 그곳에서 9시간에 걸친 향크 전투가 벌어졌다. 그들은 모사테그의 관사를 접고 공격했는데, 이 화중에 약 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모사테그는 일부 정원으로 피신했으나 이튿날 자해디의 군대에 항복했다. 미칠 뒤 사는 이란으로 귀국하여 투즈벤트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대왕은 신과 나의 혼성들, 군대, 그리고 당신 덕분에 지킬 수 있었소”라고 말했다. 15)

사의 이러한 언급은 비교적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미국은 분명 모사테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란의 독재 군주제도에 그가 가졌던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투즈벤트와 그의 동료들은 쿠데타를 계획, 지도, 그리고 제공 지원을 했고, 모사테그 제도 이탈이 실행한 후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모사테그를 몰아내고 그의 민주화운동을 장려하는 데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IV. 모사테그 정권 붕괴에 대한 미국-이란 국민의 인식

1. 미국인들의 인식

1953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선한 행위였는가? 어떤 이들에게는 분명 그랬다. 물론 이것은 미국과 영국의 정책담당자들의 생각이었다. 미국을 위한 서양 국가들, 특히 영국은 모사테그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란과 석유 국제화 논란, 그리고 모사테그에 대한 영국의 인식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되었다.

첫 번째 요소는 세계를 성숙하고 분명화된 서양과 유사하고 미개한 동양이라는

15) Ibid., p. 61.
이론적으로 나누는 영국인들의 제국주의적이고 불평등한 세계관이었다. 
두 번째 요소는 이란의 석유 국유화로 인해 엽은 정치·경제적 순실이었다. 
이 기간 동안 벌어진 영국 의회에서의 이란 관련 논쟁이나 신문기사들은 거의 
예의 없이 매우 노골적이었다. 영국인들은 영국 석유회사가 이란의 석유를 이용하 
는 대신 그들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영국 관리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하 
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영국은 이란인들을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덜 문 
명화된, 그리고 자기 의회에 빠진 이상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석유 국유화 운동 
은 외제 배척 성향의 폭동을 선동하는 이란 지도자들의 사악한 수작으로 완화되 
았다.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자와 평신적인 종교지도자들이 일반 대중들의 반란을 
교묘히 이용, 영국 석유회사의 관대한 문명화 작업에 이를 표출시켜 회사를 흐름 
양으로 삼았다. 이란, 영국인들이 모사태그를 <석유산업에 굴주린 대>라고 표 
현한 것을 보면 그들 얼마나 경멸하고 협오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개 가운데 일부는 흥남, 특히 쿠데타 기간에 미국인들 또한 공유하 
게 되었다. 그 당시 서구의 각종 유명 언론은 모사태그를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skype 했다. 타인지는 모사태그를 억지적인 민족주의자로 묘사하면서 그의 결단이 결 
국 이란의 방위능을 것이라고 했다. 유스워커치는 그를 모순되고 비연관적이며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표현하고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그 밖에 위성진 
포스트는 사실을 통해 모사태그의 성공은 투쟁 공산당과 그들의 후원자인 소련만 
을 이롭게 한 뿐이라고 전망했다. 쿠데타가 성공하여 모사태그 정권이 붕괴되자 
주요 일간지의 사실을 통해 드러난 미국 언론의 반응은 한 마디로 안도와 기쁨으 
로 요약되었다. 
1949-1953년 사이 미국 언론들의 기사에는 주로 모사태그와 이란 정치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조금씩 반해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다. 미국 
인들이 애초로 모사태그의 민족주의 운동을 지지했으나, 그 태도는 정반대로 바 
꾼 근본적인 요인은 역시 납치체제의 출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3년 이래의 
위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가가와 행정부는 납치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적 
극 수용하고, 미국이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할 업무를 지냈다고 생각하 
다. 그 당시 한국전쟁이 막 끝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퍼져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란이 공산주의화되면서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세 
계적 분쟁으로 비화되어 인류에게 급격한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16) 

17) Newsweek, August 11, 1952, p. 36.
즉, 이란과 소련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이란 공산당의 힘을 과대 평가하게 된 것이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정책
담당자의 마음을 바꾸는데 영국인들의 설득이 얼마나 큰 작용했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국은 이란 민주주의의 세력이 이란 공산화를 막을 강한 의지나 능력
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묘사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19)

서양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의 지배적인 인식을 들아보면, 모세데그 총리의 정통성과 이란의 주권 문제는 미국과 영국의 국익 문제에 가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관리들 중 쿠테타의 혼란 인물인 헨미 두즈블럭의 자서전에서도 언급되었기
듯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부의 정통성은커녕 이란이라는 일개 국가의 주권
조차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이란 정부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탈로서기적 사고에 기반을 둔 믿음과 “악의” 제국 소련의
평행성책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는 미국 내에서 쿠테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발어졌을 때 지적이 된 두 계의 중심축이었다. 따라서 쿠테타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무기 협들고 “유치한” 이란인들에게도 유익한 것으로 미국 관리들이 여겼던 것
이다.

1979년 이란 혁명은 영전시대의 서구 정연 전반과 특히 미국에 상당히 기진 매
시기를 전했다. 미국에 대한 분노와 반감은, 특히 인질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
에게 죽을음을”, “세계를 점령시키는 이 제국주의”, “미국, 거만함의 선두주자” 등의
구호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자국의 이미지
는 이란 국민들이 묘사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18세기 영국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
운 경험을 간직하고 있던 미국인은 자신들이 돈 반 제국주의적이고 호의적이며
자결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상치
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란 국민들의 거칠 분노를 접했을 때, 이들 광신주
의에 의한 비어성적인 적개심의 발로라고 규정지었다. 또한 그들은 그동안 미국이
이란을 지지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커녕 반미로 들변한 배운망덕한 해반의 국가라
고 생각했다.

18) Falle, op. cit., pp. 84-85.
19) Siavoshi, Sussan, "Iranian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Mussadeg
Period", D. W. Lesch(ed). The Middle East and the United States, London:
2. 이란인들의 인식

이란 국내에 크게 세 개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사테그와 이란 지도자로서 그의 역할에 대해 모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세 개의 세력은 1) 보수세력 2) 소련과 연계된 좌파 투대당 3) 여러 단체들의 연합인 민주전선을 일컫는다.

보수세력은 모사테그의 국유화 운동을 기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는 모사테그를 권력에 굴주린 비합리적인 지도자, 그리고 이란을 암흑의 시대로 돌고 간 인물로 묘사하였다. 그들은 모사테그가 민족주의 운동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데 대해 단 한 마디도 긍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는 모사테그의 축출에 대해 이란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운동의 패배로 보지 않고, 모사테그 세력의 공산주의에 대한 사의 긍정적인 민족주의의 승리로 보았다. 보수세력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이 개입한 사실은 이란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준기 위한 "자유세계"의 도움의 손길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깨인 이란인들 중에는 석유 국유화 운동과 모사테그 정부, 그리고 투대당을 포함하여 1949-1963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의 성격에 대해 매우 다르게 해석하였다. 그들은 투대당을 악명으로 보었다. 마스-데림주의 지식인들로 구성된 투대당 지도자들은 참취당하고 있는 노동자와 소각인 계급에게 혁명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역설했다.

모사테그와 그의 정부에 대한 투대당의 시각은 특히 1952년 중반 미국 정부와 모사테그 정부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바뀌었다. 1952년 투대당 지도자들은 이 모사테그의 석유 국유화 운동이 실제로 반 제국주의적 성격이라는 다른 추측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인 미국의 상황에 이는 이러한 반 제국주의적 성격 덕분에 민족주의 부표주가 계급은 이란 사회에서 진보세력의 동맹이 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투대당원과 비투대당원을 포함한 좌파 지식인들은 석유 국유화 운동 시대를 혁명성이 잠재해진 시대로 여겼다.

1953년 킥타라는 민주전선의 활동에 확실한 중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중교인과 비중교인을 포함하여 많은 인사는 여전히 활동하면서 모사테그가 새로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킥타라 이후 모사테그주의자들이 세울 최초의 조직은 이란민주항쟁운동(NRMI: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of Iran)이었다. 킥타라의 성격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다른 모사테그 추종자들이 함께 공유했다. 사는 저자하고 모사테그를 권력 창탈자로 여기던 보수세력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 NRMI 지

20)황실, 다수의 힘 있는 군 장교, 부유한 상인, 지주, 친 영국 성향의 정치인들.
도자들은 이런 현황에 의하면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사테그가 사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현법에 충실하기 위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사테그가 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란의 총리로서 국민 들로부터 민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를 총리의 자리에서 물어낸 것은 불법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모사테그주의자들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은 영국과는 달리 전략적이었다고, 경제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공극적인 목표는 소련 패망 주의를 막는 완충지대의 건설이었다. 모사테그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란 민족주의자들은 이 목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고 이란 내에서 공산주의의 영향을 제한하기를 원했다. 1963년 쿠데타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족주의자들의 미국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상대적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크로 유지되었다(21).

모사테그 시대와 쿠데타에 대해 이슬람 성직자들은 독탄한 민족적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면 '아니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에 대해 종교개념의 동일한 민족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석유 극화 시기의 종교개념의 성향과 행동은 입헌시대와 여러 가지로 비슷했다. 1949-1953년 사이에 어떤 종교인들은 모사테그를 지지하고, 어떤 이들은 반대했다.

보수적 성직자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테헤란의 비호바니는, 유명한 입헌운동가였던 그의 활동비지와 달리 기존체제와 절서를 용호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쿠데타 주도자들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마르자매 타블리드 중 한 사람이었던 부르주아는 공식적으로 종립을 지키면서 성직자들이 정치에서 밀을 뿌 것은 촉구했다. 호메이나를 위시한 그의 추종자들은 1949-1953년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들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가운데 일부는モサ테그의 권한에서 석유 유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 1949-1953년 사이에 가장 높은 정치활동을 벌인 종교인은 카시아였다. 영국 제국주의와 관련한 그의 개인적인 경험들로 인해 카시아는 비등명 사상에 빠진 반 영국 성향의 활동가가 되었다.

투대당과 손을 잡은 민족정치와 결별한 이후 카시아는 모사테그를 공격하면서 사실 천상했고, 결과적으로 쿠데타를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에 대해 여전히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사테그 정부 시절에 단절되었던 이란과 영국의 외교관계의 재개에는 반대했다. 카시아는 미국에 대해선 별로 말이 없었으나 1951년 11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란 내전에 간섭하는 어떤 외국 정부

(21) Ibid., p. 72.
도 원하지 않는다는... 미국은 영국의 정책노선을 담습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전세계 특히 이란에서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중고와 위상의 격화만을 가져올 것이다.22) 서방세계에 대해 그가 서로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니는 미국을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전범적에 멀어져 오는 국가로 여긴다는 훈을 비판적이다.

이런 종교인들은 모사테그와 그의 이상을 폐하는 수단까지 총공하게 따랐다. 그들의 일부는 NRMI를 창설하는 데 동참했다. NRMI는 초기의 민족전선보다 종교적 단일성이 약간 더 강하기는 했지만 모사테그의 이상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다. 이 종교인들은 자유민족주의자들 중에는 잔나, 탈레나기, 안가지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사테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를 반대했고 모사테그를 믿지 않으며 반대하였다.23)

3. 모사테그 사건과 현재 핵위기에 대한 이란인들의 인식

1950년대 당시 미국 관리들은 모사테그가 미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위험 요소가 되지 못하다는 칭찬을 볼 때 모사테그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격려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인식은 모사테그의 동지 하에서 이란의 정치불안과 사회혼란이 증대됨에 따라 서서히 바뀌었다.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바람에 쏠린 된 미국의 안보 논리에 따르면 이란은 영연대에 서방세계의 간섭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아이젠하워 정부가 들어서자, 더욱 강력한 반공주의 정책을 가진 그의 외교정책을 희생의 트루먼 행정부 출신 일부 관리들은 모사테그를 지지하던 기존 정책을 버리고 그들 정권에서 돌아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결과적으로 냉전과 연계된 미국의 안보 논리와 모사테그 정부가 그들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관리들의 시각의 변화는 미국이 1953년 8월 쿠데타 실험 계획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냉전 논리의 출현과 약의 세력으로 그려진 소련의 이야기에 의해 가공된 안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미국이 이란 문제에 개입했던 것이다. 미국은 모사테그가 서방 세력을 적대시하고 소련과 연대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 이유를 밝혀내고 미국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테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판데피 독재정권을 지원한다는 사실은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 이란인들에게 매우

22) Bill, op. cit., p. 288.
23) Siavoshi, op. cit., p. 74.
위선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쿠테와가 성공하고 그 뒤 표면적으로 평온
함이 유지되자 미국 관리들은 쿠테와가 매우 원형한 선택이었고 자신들의 전형적
인 망일 논리가 올랐던 것으로 확신했다.

그 후 수년간 미국 관리들의 이와 같은 시각은 변함없이 사를 전폭적으로 지원
하고 독재정권을 견고히 하여 이란이 소련의 향장주의 정책을 저지하는 데 역
할을 하도록 하였다. 쿠테와 후 보자데그와 민주진선의 위협이 효과적으로 자단된
상태에서, 빠른 경제 성장과 매우 효과적인 감시 및 안보체계 속에서 사는 1950년
대 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확고히 나았다. 그러나 많은
이란 국민이 사 독재정권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그들은 1953년 미국이 사
들 뒤를 시의 새로운 독재정권을 강화시키도록 지원해준 것을 점점 더 격렬하게
비난했다. 국민들의 이 같은 분노는 과거 보자데그가 일으킨 것과는 다른 형태로
1970년대 사에게 새로운 시련을 제공했다. 그것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면서 폭력적
이고 매우 반미적이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미 대사관을 '스파이의 소굴'이라고 불리어진 스토리건
은 1933년 초에 이미 태생한 거력에서 성난 군중들이 외치어졌던 것이다. 보자데
그를 1952년 1월 타이지의 '표지 인물'로 선정한 것과 같이 흔적은 1979년 1
월의 표지 인물로 선정하고 '방전히 광신적이며 심한 놀람'이라고 묘사한 것은 역
사의 반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제는 1933년 쿠테와 개
업의 연장선으로 확대해서 보는 이란 민중들의 시각과는 폐가 매우 컸다. 즉,
1933년과 1979년 사이의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란의 대다수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
고 사 독재정권과 그의 정치 액티스트 집단과의 특수한 관계관계에 의존했던 것이
2006년 오늘날 미-이란 양국간 갈등관계의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해하기 위해서 이란과 서구세력과의 역사적 관계를 간략하게
줄여 앉아 볼 필요가 있다. 서구 열강이 침략해오기 전에 이란인들은 아랍, 동굴,
오스만제국과의 전쟁으로 쓰러진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란의 현대 역사상 보세의
침략과 움포에 의해서 이란 민족 지향세력의 지도자 쿠테와 Khan(Mirza Kuchek
Khan)으로부터 시작해서 19세기의 개혁주의자 아미르 카비르(Amir Kabir),

24) 임현철 이론 이란 중앙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제에서 반란이 번발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반란은 1920년대 초 장달리(Jangali) 반란으로 쿠테와
(Kuchek Khan)이라는 일반적인 무슬림이 주도했다. 그는 후에 이란의 군인 이슬
람 협동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장 위대한 혁명가 중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게 되었
다.
25) 이란의 가장 침략받는 정치적 인물은 아미르 카비르(Amir Kabir: 1848-51)는 대
단히 중요한 역할을 남겼다. 리프산자니는 전 이란 대통령은 아미르 카비르에 관
그리고 희에 모사테그 같은 이란 민족 영웅들의 수난사로 가득 차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집단적 기억들은 허에러지에 대한 이란인들의 열망을 서구세계에 대한 이란 민족의 상징으로 만들어가는。

이와 같이 이란 이슬람 정부가 이토록 핵개발의 주권에 잃착하는 이유는 서구 열강의 비판적 접근과 내정간섭, 그리고 실지어 기술 숨직의 권리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는데 있다. 이란의 모든 이란 아이들조차도 미 CIA지원 하에 러시아로 모사테그 민족주의의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다. 선태이 과거 역사에 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이란인들도 18-19세기를 통해서 이란이 어떻게 열강의 폐권게임(Great Game)의 각축장이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이란인들은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영국과 러시아가 그 당시 경제발전에 중요했던 기분적인 철도건설 기술조차도 박탈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영-러 양국이 이란 흔한 철도 건설을 여러 차례 반대했는데 그 이유 그것이 그들의 독일의 제국주의 행정정책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 있었도. 그러나 결국 이란이 적절 철도가 완공되었을 때,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영-러와 미국 점령군은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의 다리(bridge of victory)"라고 부르며 그것을 무한으로 이용했다. 물론 원스턴 처칠 수상이 그 철도를 부설한 레차 사 궐데비를 매우 하고 국외로 수송한 이후에도 그들은 그 철도를 계속 이용했던 것이다.20

이란의 경제적 주권인 1961-53년의 석유 국유화 운동도 영국을 위한 서구 열강에 의해서 무산되었다. 이것은 이란인들의 민족적 이해에 영원한 상처를 남겨 놓았다고 오늘 날 이란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그들의 핵개발 주권이 미국에 의해 무산되고 있는 현실과 동일한 맥락에서 간주한다. 이란 국민의 열망과는 무관하게 미국은 지정학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모사테그와 레자 샤의 정권을 폐쇄했던 것이다. 많은 이란인들 특히 호메이니에게 있어서 미국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거대한 폐권게임(Great Game)"으로부터 "거대한 악마(Great Satan)"로 이어졌으며, 이란인들의 집단적 기억은 이러한 주제로 가득 차있다.

현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거대한 악마" 미국의 정책에 맞서 핵무기만이 이슬람 신성체를 수호할 수 있다고 이란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 외세력이 이란의 철도 부설 및 석유산업 주권에 대해서 행했던 것과 동일하다.

한 그의 저술에서 그는 "식민주의와 투쟁한 헤피언"으로 묘사했다. 아미르 카비르의 가장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는 외세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근대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의 실현이었다. 21

구세력이 이란의 핵기술을 잡시 동안은 중지시킬 수 없겠지만 이란인들의 끝에 작된 기역들은 지울 수는 없다. 그리고 현 이슬람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이란 국내 반해세 세력을 탐압하기 위해 이러한 역사적 절단 기역을 충분히 활용할 것은 자명하다.

V. 결론

1953년의 모사테그 정권의 붕괴에 대한 이란인들과 미국인들 간의 시각 차이로 인해 미-이란 양국은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국의 적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란으로부터 소련군을 철수하도록 모스크바에 압력을 가하여 결심을 몰았다. 또한 미국은 양국이나 소련과 달리 이란의 국내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므로써 자유와 독립을 대표하는 국가로서의 ‘수호자’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러나 1953년에 팔레비 왕정을 다시 일으키려고 미국의 전략이 빚어낸 여러 사건들은 1979년 사 정권의 붕괴 및 미국의 국익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53-1979년 사이 미국이 이란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경제법이 결여된 팔레비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이란의 자유주의 세력에게 정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됐던 것이다.

이와 같이 모사테그 총리의 촉탁한 1953년 쿠데타에 미국이 갈수가 개입했던 것이 이란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시각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1953년까지 미국은 정치적으로 제어 있는 대통령의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궁극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이미지는 쿠데타 이후 임청난 타격을 입었다. 그 후 약 25년 간 사 정권을 지원하는 가운데 이란 국내 경제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미국의 이미지는 ‘기대한 악마’가 되어 제 국주의 국가로 비춰지며 불신의 햇살을 걸어갔다. 이란인들은 영국 및 소련의 개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개입을 비난했던 것이다. 아무리 모사테그 정권의 붕괴는 미-이란 양국 간의 해기 동안의 우호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의식 있는 이란 민주주의 세력의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부시의 ‘야의 축’의 연설은 이란 민중들의 자유에 대한 희망을 역암하는 “전을 뒤지지 않은” 소수의 지배자들을 비난하고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혈설과 죽음의 두듭은 이란 시민”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납았다. 이 연설은 과거의 방향, 특히 1953년 CIA의 쿠퍼레이트 이란 민족주의
의 모사데그 정권의 붕괴와 두 세기에 걸친 서구 제국주의의 방향을 불리면서 센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조국”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강정 이슬람 보
수파는 조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CIA가 제2의 1953년의 쿠퍼레이트 회복
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이란 국민들에게 고조시켜 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해서 현 이란의 ‘신정제제’ 교체라는 미국의 정책에 맞서 핵무기
만이 이슬람 정권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고 이란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들은 이란 민족의 ‘핵개발 주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 있다. 과거
제국주의세력이 이란의 철도부설 및 석유산업 주권에 대해서 행했던 것과 똑같
이, 서구세력이 이란의 핵기술을 장시 동안은 중지시킬 수 없겠지만 이란인들의
무리에 가임된 기억들을 지울 수는 없다. 그리고 이슬람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발
전시키고 국내 반제제 세력을 탐압하기 위해 이러한 집단적 기억을 충분히 이용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란인들은 과거부터 그들 조국이 근대화되지 못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을 외세에 의한 음모의 탓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Siavoshi, Sussan, "Iranian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Musaddiq
Iran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XV, No.1 & 2 , Spring-Summer 2003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8, No. 1, March 2004.
Newsweek, August 18, 1952.
Time, July 6, 1952.
U. S.–Iran Relations and Iranian Perceptions Change
- The Mussadiq Era, 1951–1953 -

Chang, Byung-Ock
HUFS

In the 1950's, Muhammad Mussadiq as the Iranian prime minister is respected by most nationalistic and democratic Iranian people. He ended along period of British oil hegemony in Iran by nationalizing Anglo-Iranians Oil Company, or AIOC, giving Iranians strong national pride. The AIOC had been exploiting Iranian oil since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Unfortunately however, the AIOC didn't understand the nationalist spirit of postwar Iran.

At the start of the Mussadiq era the United States had a very positive image in Iran. U. S. and Iran have good relations, in which she supported Mussadiq government, mediating an agreement with the British. But U. S. support for Mussadiq declined, unlucky under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U. S. engineered a coup d'état that collapsed Mussadiq nationalist regime, and backed despotic Shah regime. As a result U. S. image in the eyes of Iranian began to change from goodness to evil.

This paper examines U. S. – Iran relations during Mussadiq period. Especially it focus on the strategic change of U. S. policy toward Mussadiq regime in Iran, causing U. S. image from benevolent supporter to malevolent evil.

[Key Words : Oil, nationalism, Mussadiq, U. S., British, Iran, Shah, CIA]